

역대급 토지 보상금 올해 32조원 풀린다

토지 보상 사업지구 92곳 61.83㎢ 수도권에 25조7800억...84% 집중
고양 등 1조이상 보상 지역만 5곳 시장 자금 촉매제 작용 우려 제기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중 84%는 수도권 지역에서 풀릴 예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다시 시장을 자극할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수는 총 92곳으로 면적 기준으로 61.83㎢. 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으로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2조62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지구별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축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우선 남양주 왕숙1·2, 고양 정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부천 대장(341만6544㎡)이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개시해 같은 해

12월 말부터 협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865만4278㎡)·왕숙2(239만33845㎡)와 고양 탄현(42만2889㎡), 부천 역곡(66만1963㎡), 성남 낙생(57만8434㎡)도 지난해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상반기 중에는 고양 정릉 공공주택지구(789만19㎡)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2만6661.9㎡)가 3월과 6월에 각각 협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광명 학은(68만3922㎡)이 7월, 안산 장상(221만3319㎡)이 10월, 수원 당수2(68만4444㎡)·안산신길2(75만8343㎡)·하남 광안(28만3206㎡)이 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28만9760㎡)과 왕숙 진건2(45만3009㎡), 하남상산곡(28만361㎡)이 하반기 중 협의 보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32만1300㎡)도 올해 10월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토지보상금 예상 규모는 수도권에 압도적이다. 수도권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원으로, 전체(30조5628억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특히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5789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117억원) 등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만 5곳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약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신우기자 leeuw@jeonmae.co.kr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된 안성시보건소

오미크론 방역체계가 시작된 경기 안성시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26일 오전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결국 1만명 넘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

신규 확진자 수 1만3012명 발생
경기 첫 4천명대...비수도권 4589명
29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전국 지자체, 설 앞두고 방역 '총력'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1만명을 넘는 것은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고 발표된 기준 7371만명의 최대 기록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이남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했다. 현재 10일인 백신 접종 완료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일찍이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선제 조치에 들어간다. 이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시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하

고 내달 3일부터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과 지정 병원·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도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25일 하루 도내 신규 확진자가 4221명이라고 밝혔다. 종전 도내 하루 최대 기록이었던 24일 2917명보다 무려 1304명 많은 것이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이날 18일 이후 7일 연속 2000명대가 나오면서 4차례나 도내 최대 기록을 경신하더니 25일 4000명대까지 치솟았다.

확진자가 늘면서 최근 일주일(1월16~22일·3주차) 도내 확진자 수는 1만5109명(하루 평균 2158명)으로 직전 주인 1월 2주차 1만556명(하루 평균 1508명)보다 43% 증가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평택시 300명, 용인

시 377명, 수원시 273명, 고양시 269명, 성남시 230명, 시흥시 223명, 안산시 215명, 남양주시 204명 등 8개 시에서 200명 이상 발생했다.

또 화성시 194명, 광주시 179명, 부천시 163명, 김포시 154명, 의정부시 149명, 안양시 146명, 과천시 132명, 안산시 130명, 광명시 106명 등 9개 시에선 1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3110명, 인천 860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664명, 부산 548명, 경남 531명, 경북 438명, 충남 403명, 광주 392명, 대전 368명, 전북 298명, 전남 284명, 충북 249명, 강원 158명, 울산 142명, 세종 76명, 제주 51명 등 총 4589명(36.0%)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설 연휴를 '중대기로' 보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귀성·귀경객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설 연휴 동안 특별방역 대책을 가동한다. 도내 87곳에 선별진료소를, 68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용인(영동선 인천 방향)·안성(경부선 서울 방향)·이천(중부선 하남 방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에 나선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현재까지 확보한 5400병상 외에 동국대 일산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중증환자용 62병상, 준중증환자용 15병상, 중증환자용 38병상 등 11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내달 중 최대 1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2800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중증 병상 90개, 준중증 병상 400개 등 1600개 병상을 확충하고 대구은행연수원 등 2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병상 1000개를 추가한다.

경남도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차례 지내기를 권고하고 제례실 대부분을 폐쇄하기로 했다. 실내 방안시설 및 유기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했다. 고향에 방문할 때는 대중교통 대신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것과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할 것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제주도 역시 명절 때마다 많은 추모객이 몰리는 양자공원 내 제례실과 휴게실의 문을 연휴 동안 닫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에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종합/김윤미기자

수원 고색역 남측 등 도심복합사업지 11곳 선정

1~8차 후보지, 10만기구 목표 51% 수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수원 고색역 남측 등 경기지역 2곳과 서울을 9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 11곳(1만159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공급 목표로 잡은 19만 6000가구의 절반이 넘는 51% 수준의 후보지 지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곳이다. 먼저 이번 후보지가 운세 사업지 면적이 가장 넓은 수원 고색역 구역(약 10만7000㎡)은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그간 고도제한구역 등에 묶여 있어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정체된 곳으로 22947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될 예정이다.

공공 규모가 가장 많은 효정공원역앞 구역(약 7만8000㎡)은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48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외 업무·상업 등 기능을 갖춘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 외에도 수목산역 인근(2만8000㎡·698가구), 대림역 인근(6만1610㎡·1610가구), 고덕역 인근(6만1000㎡·400가구), 상봉역 인근(1만7000㎡·512가구), 봉천역 서측(8000㎡·287가구), 봉천역 동측(7000㎡·305가구), 반동중학교 인근(1만3000㎡·298가구), 중곡역 인근(1만8000㎡·582가구), 수원 구(舊)관선 131-1구역(3만3000㎡·685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정미기자 seo@jeonmae.co.kr

경북도, 민선7기 '좋은 일자리 10만개' 목표 조기달성했다 >2면 설 귀성길 31일 오전·귀경길 내달 2일 오후 '가장 혼잡' >13면

보건복지부 고시(보건복지부령 제 2021104-호-113259)

건강관리와 시작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문의 : 032-890-8700

2022 보령방문의 해

보령으로 오세요~

보령시
BORYEONG

보령해저터널

2022 보령해안 마드박람회
2022.7.16~8.15

Always Exciting!
2022년 보령 방문의 해
Visit Boryeong 2022

어드벤처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머드 체험

스카이버이크

대전해수욕장

충청수영성

천복 굴

조개구이

힐링 & 테이스트

원산인면대교

단신브리핑

500억 규모 소상공인지원 자금

세종시는 올해 전년 대비 204억원이 증액된 588억원 규모(69억원 기보증 안표)의 '소상공인지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금을 취급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각 1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자금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상환 원리 후 1년 미만 경과자의 재지원 유예조건도 해제하는 등 자금지원 방식도 대폭 개선했다. 시는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를 개시하면서 과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공무·천안지점으로 이동해야 했던 관내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원장 시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해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농촌융복합 사업성과 평가 2년속 1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성과 평가'에서 전남농촌융복합사업센터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신규인원이 77개소나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6개 인증경영체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순전정원비율과 매출기대매출액 등의 인체비율을 통한 매출액도 전년(14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44억원을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현장 모니터링 27건, 교육 143건 등 사후관리와 센터 사업비 집행률, 성과도록에서도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농촌융복합 활성화' 사업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억원으로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사업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생산기공제협력관공을 아우르는 친환경 중심 농촌융복합사업 성공모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양/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주거급여 지급액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경기 수원시는 올해 주거급여 지급액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219만 431원에서 올해 235만 597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7만 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연립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일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본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선식기자 spspark@jeonmae.co.kr

지난해 2만9230개 민선7기 누적 10만4240개 일자리 창출

올해 목표 상황 조정...하대선 부지사 "사업 완수 진력" 독려나서

경북도는 민선7기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10만개를 조기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만 923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선7기 누적 10만 4240개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세부적으로 직접일자리 등 5개 분야 7만 3867개, 민간 일자리는 기업 투자유치 등 3만 874개이다. 분야별로 보면 행복·복지일자리 3만 1018개, 투자유치 일자리 3만 874개, 기업 일자리 2만 6869개, 문화관광 일자리 6827개,

사회적 경제 일자리 4671개, 농업 일자리 4446개로 나타났다.

도는 이철우 지사 취임 직후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단기 일자리 위주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1년 이상 상시 고용 일자리로 전환해 양보다 일자리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민선7기 직주인 2018년 일자리 사업수와 예산액은 132개 사업, 4649억원에서 2021년 192개 사업, 1조

795억원으로 대폭 확대 됐다. 좋은 일자리 수도 2018년 1만 9289개에서 지난해 2만 9237개로 9948개 늘었다.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위기의 전자산업에서 신사업으로의 전환과 일자리 매칭을 추진한 '고용인정 산재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기업과 청년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및 여성·노인·지활·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일자리의 비atap이 됐다.

특히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 사

업의 성과도 뛰어났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률은 2018년 37.3%에서 2021년 38.7%로 1.4%p 상승했고 실업률도 2018년 12%에서 8%로 4%p 감소했다. 도는 민선7기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를 조기 달성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목표를 상향 설정 할 방침이다.

하대선 도 경제부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합심해 달려"며 "일자리 는 도민 모두의 약속이자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점사업인 만큼 사업 완수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d@jeonmae.co.kr



권덕철 장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점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설 연휴를 앞두고 26일 오전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총남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 '올인'

올해 42억 투입...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개발 등 9개 사업 추진

충남도는 올해 9개 사업에 42억 7750만원을 투입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의 '다들들 사업' 3대 추진 과제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선 대면 화 등이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13억 7500만원, 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 27억 1000만원, 수소차 보급 204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 245억 3500만원이다.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은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자동차 중 하나인 수소차의 부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8억원이며 올해 추진 사업 내용은 정비 구축과 연구·평가 장비를 활용한 기업지원 등이다.

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톤 전가차 시뮬레이션 및 실증, 베트남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자율서비스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실증 62억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생태계 조성 81억 8400만원, 융합형 전장 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 20억 3500만원 등 3개 사업에 164억 6800만원을 투입한다.

자율서비스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실증은 독립조향 공용새시블넷폼, 교체형 캐빈,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실험 적용을 위한 지원 등이다.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 개선 기술 선점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0억 5000만원의 사업비 중 올해 81억 8400만원을 투입, 보령 광산산업단지 내에 센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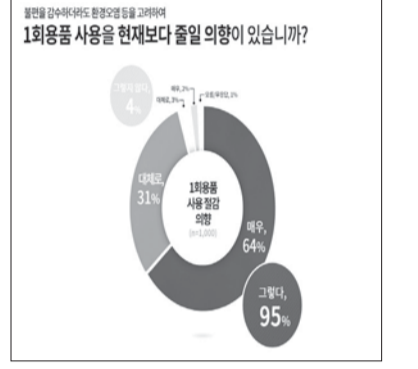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미래선 대비하는 정보와 수출 역량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바이어 발굴 및 연결, 무역 실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6개 사업체에 24억 3000만원을 지원, 1조 5741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장했으며, 채무 불이행 발생 6개 기업에 6억 2500만원을 보상했다.

올해에는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5500억원을 보정한다. 이와 함께 차량융합도체 수급 불안정과 수입 의존도 해소 지원을 위해 차량융합도체·자율주행 R&D 센터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제품 도 마태산업국장은 "자탄소(D), 포용(S), 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 등 산업 여건 변화에 발맞추고, 친환경·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을 통한 지원하기 위해 도내 혁신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유저본부/한상규기자

경기도민 95% "1회용품 사용 줄일 의향 있다"

경기도민 95%는 당장 불편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1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하루 평균 2.13개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만 18세 이상 도민 1136만 명으로 단순 환산하면 하루 사용량은 총 2416만여 개에 달한다.

자주 사용하는 1회용품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70%) ▲종이-플라스틱 등 1회용 컵(62%) ▲1회용 나무젓가락(34%) ▲종이-플라스틱 등 1회용 접시 및 용기(22%) 등이었다. 도민 절반(50%)은 1회용품 사용량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사용량이 늘었다'는 전체 36%인 가운데 특히 30대와 40대는 각각 49% 47%로 코로나

자 807명의 77%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배달앱 이용자 588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84%가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 시 1회용 수저·포크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민 72%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다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 도민 하루평균 2.13개·2416만여개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70% 최다
- 다회용기 시범사업 대상 확대방침

회용기 시범사업 경기도 전역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선 조사도 환경국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관련 법제화를 이끌어 내 민간 배달앱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올해 다회용기 시범사업 대상에 용인 수지를 추가하는 등 사업을 점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30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대한민국 대표 문화 예술 도시 서초



오미크론 급속 확산속 신규 확진자 1만명 넘어...“내달 3만명 이상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오미크론은 지난주(17~23일) 50.3%의 검출률을 기록하며 우세종이 된 가운데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져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다. 방대본이 서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전파율을 델타의 2.5배로 가정했을 때 확진자 수는 이날 말 7200~8300명, 내달 말 3만1800~5만22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제강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러 연구팀에서)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와 진단 체계를 가지면 3월에 20만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적어도 3개월 정도 고강도 유행이 꺾일 것 같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취재진에 “10만~20만명 (예측)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3만명 정도에서 피크(정점)를 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3만명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재환 가천대내과 예

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상황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3만명은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의 사례를 보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주차별로 확진자가 50~100%, 또는 100%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몇 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산속도 정부 예상보다도 더 빨라 3만명 vs 20만명 이상 전망 엇갈려 확진자 급증시 필수 대비해야 우려 “엔데믹, 기대는 하지만 낙관 말아야”

그러나 손 반장은 지난 24일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안 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진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재택치료, 자가격리자도 함께 증가해 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확진자 수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에 필수 사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도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방대본이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를 대상으로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0.16%로 델타 감염자 치명률(0.8%)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입원율과 중증환율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토대로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런 기대는 이미 하루 10만~20만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을 경험한 유럽, 하루 80만 확진자에서 정점을 찍은 미국 등에서 커지고 있다.

국내와 해외의 방역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엄중식 가천대 질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국 등 하루에 몇십만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몇 번의 유행에 걸쳐 경험한 나라와는 완전히 조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영국처럼 여러 차례의 유행 동안 광범위하게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행의 진폭이 줄어들 수 있지만, 유행을 억제해온 국내에선 방역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날 0시 기준 85.5%의 접종완료율(2차접



오미크론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인 13012명이 신규 확진자로 발표된 26일 오전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민기

종)을 기록한 한국처럼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많지 않다. 외국의 경우 감염을 통한 자연면역 사례가 한국과 비교해 더 많다.

정 교수는 “백신도 면역에 기여하고, 감염도 면역에 기여한다”며 “엔데믹과 팬데믹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의 비

율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유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경기도, 올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277억 투입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산불 피해면적 건당 0.24ha이하로 목표 대응체제 강화, 조기대응 강화, 시설·장비 확충, 산불예방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

경기도가 올해 산불진화력기, 산불진화인력 운영 등 대응 태세를 더 강화해 산불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 면적인 0.24ha 이하로 줄이기 위한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진화력기 1만 1000여대, 전문진화대 운영 141억원, 산불소화시설 2개소 3억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4억원 등 총 27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력기 임차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사군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7대를 새로 도입했다.

도는 우선 사군과 협력해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명절, 주요 행사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관련기관과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 산불상황실에 산불현장과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직접 산불 진화에 나서는 사군 산림부서장 및 담당자의 현장 지휘·진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원안지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사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진화력기 20대를 사군에 분산 배치해 신고 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드타임제’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거점 사군 10개를 지정해 산불진화력기의 임차기간 및 담수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조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국방부, 사군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각 사군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2개 팀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불철 산불조심기간 전 관련 인력 고용을 마무리하게 할 방침이다. 불성실 근무자는 퇴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해 10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진화인력도 945명 운영한다.

이들러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재난민자

를 발송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먼저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펼친다. ‘산불소화시설’도 남양주시 등 2개 사군에 설치한다. 동시에 산불진화차 7대와 산불상황판제 시스템 1500대, 개인진화장비 855세트 등을 신규 구입하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 초소 교체, 무선산불방지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부대, 소방서 등에도 등짐펌프, 불갑퀴와 같은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산불로 방치된 쉬운 군 사격장 화재에 대해 진화력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또 산불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과 점검수를 벌채 후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성식 도 축산산업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등산 등 산림 내 활동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경기도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개시...연간 209.7GWh 생산

신안태양광 발전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신안군 신안태양광 발전단지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자체, 국회의원, 주민참여 지역주민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안태양광은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국내 태양광 모듈 업체인 탑선이 신안군 지도읍 및 서목도 소재 총 4개 마을의 142만㎡ 부지에 건설한 발전단지로 설비용량 규모는 150MW(메가와트)이고, 총사업비는 3196억원이 투입됐다.

이달부터 2040년 12월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신안태양광은 단일 사업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우수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연간 209.7GWh(기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월 350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4만9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석탄발전을 대체함에 따라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간 약 180만(톤)의 온실가스와 410t의 미세먼지(PM 2.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신안태양광은 최대 규모의 주민 투자를 확보한 주민참여형 사

업이기도 하다. 발전소 인근 주민 2875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채권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4%인 128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정부는 주민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민참여자금을 통해 주민 투자금 총액의 90%(118억원)를 조달했다. 발전소의 전력판매 수익 중 연간 26억원(투자 수익률 약 20%)이 주민조합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공동체 소득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4만 9천가구에 공급 주민 2875명 128억 투자 매년 26억 이익

이들러 신안태양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한 모델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은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했으나 계통 용량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신안 지도·서목도 내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220MW(메가와트) 규모의 민자발전소를 건설하고 14km 길이의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신규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등 전력계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문 장관은 기념사에서 “신안태양광 준공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을 포함한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양양군

壬寅年

즐겁고 행복한 설날도세요!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李 “젊은 국민내각... 3040 장관 기용”

위기극복·통합정부... 총리 추천제 도입
“정치교체, 7인회·宋대표 결단 감사”

“SRT·KTX 통합 공공성 높일 것”
수사발 고속철도 청영 등 직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며 쇄신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 30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이재명의 국민 내각은 책상머리 보고서 리더십이 아닌 현장형 해결 리더십으로 절대 전환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영역, 미래환경 영역, 에너지 관련 영역 등이 젊은 과학인재들이 맡기에 적당하다”며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영역도 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내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총리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 정치교체”라며 “(7인회) 일꾼들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하다”며 “정치혁신을 위한 7인회 구성을 결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반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 버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송 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찾아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자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매일신문>

당내 쇄신 흐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특정인들의 정치 은폐탈까, 이런 건 제가 감히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시인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가며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권이 내려놓아야 할 기록권을 묻는 말에는 “지방정부 책임자와 국회의원의 출마자격 제한이나 4선 연임 금지, 사퇴사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당내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당 지도부 선거에서 비중이 너무 대의원에 집중된 부분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SRT·KTX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 열차는 저속 운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도 다 떠안고 있다”며 “SRT는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 정비·유지보수·판매·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무리한 경쟁입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양사를 통합해 수사발 고속철도가 부산·광주뿐 아니라 창원·포항·진주·말산·전주·남원·순천·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겠다.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열차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 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증편하겠다”면서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열도 적자를 보충하고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尹 “정체성 인식 안보 우선조건”

글로벌비전위서 외교안보 공약 이행 모색
“정신 똑바른 나라 집약에도 국권 회복”

‘심쿠피약’ 21번째... 재빨로봇 보행치료 확대
“선별의료급여 적용... 산업 지원 강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6일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의입법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글로벌 중추국가’를 민·국회의원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매일신문>

이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인권중심 정신이라는 사명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정신에 입각해 이 나라가 운영될 때 이 나라를 지키고 자 하는 국민의 열의와 혼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후보가 지난 24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발표한 20개 외교안보 공약의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윤 후보는 “무엇이 국익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 나가고, 또 다른 국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내의 문제는 국가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그 국가가 지킬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다. 법의 지배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대원칙 역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해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증 같듯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심화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와 전환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방력과 동맹관계, 그보다 우선하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국민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국가안보와 평화를 든든히 지켜주는 버팀목”이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매일신문>

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통치구조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자유와 인권, 이걸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현대 문명국가 대 부분의 공유하는 가치이고 이런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협력하고 경제와 외교 현장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큰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지혜하는 전체주의적 세력도 있고 있다”며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나라끼리는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런 가치체계에 동의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먼저 성숙한 나라의 국제적 책임”이라며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이라는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견고히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쿠피약’ 21 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재빨로봇 보행치료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재빨로봇 보행 치료와 적용 가능한 웨어러블 재활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의료현장에서 재활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성과를 보이는 업체가 있지만 성정을 독려할 지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재빨로봇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극히 소수의 뇌졸중 환자들에게만 선별의료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재빨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에 대해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재빨로봇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가 균형발전 선도

국공립 30년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세종특별자치시

安선대위원장, 홍준표 이어 김종인도 만나

국민의당 인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만났다. 최 위원장이 윤 후보측과 관련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것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26일 이런 관계자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전화통화로 있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인사차 찾아간 것으로, 단일화나 대선 지원 요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 대화와 오간 성격의 자리라는 안건으로 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래 아는 사이다. 내가 서강대 교수를 할 때 (최 위원장이) 학생이었고, (최 위원장이) 옛날에 서강대 교수였지 않나”라면서 “단순히 인사차 만났다”고 말했다.

김 “원래 아는 사이”... 안측 “인사차”
안 “후보호시비 대담 의혹 검찰 밝혀야”

앞서 최 위원장은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이번 기회에 뵙고자 한다”며 여비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만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담 의혹의 진실을 이 후보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분은 여당의 30년 열성 당원이었다고 하니, 공개적으로 (변호사비 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만, 저는 명확한 물증 없는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분이 왜 죽음까지 이르

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 긍정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 변호사비 대담 녹취록을 공의 제출했지 않나, 오히려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리고, 검찰수사는 석 달이 지난데도 검찰무소식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역경이 무너졌는지”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섬세하지만도 모르겠지만, 공직 후보자는 의혹이 있으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의혹은 빨리 털어 내는 것이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저나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래야 진실을 지켜내고 정치가 비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국힘, 민주 무공천에 3·9 재보선 공천 전략 고심

서초갑·대구 중남구 무공천 주장도

국민의힘이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 의원 재보선의 공천 전략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쇄신안의 하나로 서울 중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세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내놓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내 입각에서는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를 거론하며 “우리고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공천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영숙·곽상도 전 의원의 빈 자리에 공천을 포기하지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는 공천만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지역”이라며 “거기에서 무공천을 결단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계략’에 말려선 안 된다고 경계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 무공천에 따른 방식은 응수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출연해 “지회 공천 기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송 대표의 쇄신 약속이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논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간다”라고도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여당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우리가 부화뇌동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윤영숙 전 의원의 경우 사퇴해야 할 민심의 잘

못이 있었는지, 여당의 마나사상에 희생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거대 여당과 당장 의원 1명이라도 아쉬운 소수 야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5석 없어도 국회를 알뜰하게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며 “우리는 우리 스태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 전환용으로 만든 ‘폼수’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승수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지나치게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주위에 “2000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연장선에서 서울 중로 등에 2000 여성을 과감히 출전시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 확장 전략과 시너지를 내자는 의견이 선대본부 입각에서 나온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우리 당 귀책 사유로 공석이 발생한 곳에 젊고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내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정치인이 아닌, 아예 신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분을 발탁하면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李·尹 양자토론 불발... 법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했다.

서울서초지법 민사합의2부(백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 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횡수, 형식, 내용구상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토론회가 유관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후보자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 경제,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미래 삼척 설계”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올해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일상회복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확충

시는 액화수소 실증을 위해 내년까지 교통지역에 40억원을 투입해 1일100kg의 소규모 액화수소 추출설비 및 대용량 충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수소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8년까지 1일 30t 이상을 생산하는 액화수소 플랜트를 호산 LNG 생산기저재 구축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구 도시의 활력화를 위해 주민 주도형으로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 컨테츠를 중심으로 도시 활력화와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사업비 300억을 투입해 내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학로 거리 가로환경정비와 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하고 걷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내년에는 대학로 주차타워건립 준공으로 주변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을 내년 연말까지 완공해 문화공원을 마무리해 대학로가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340억을 투입해 폐산업시설이 아트체험공간과 테마별 문화·전시공간으로 재탄생 될 전망이다. 또 석탄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였던 도계지역을 새로운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910억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한다.

● 문화·관광 및 교육 융성을 통한 새로운 도약

삼척도호부 관이유적 복원사업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복원사업에는

충천소·생산시설 확충 수소에너지 구축 속도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정주환경 개선 문화·관광·교육사업 마진... SOC사업 박사 소상공인·지역일자 맞춤형 정책 지원 요청

115억을 투입해 2024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시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이시부 장군의 해양개척 정신 고취와 독도 영토수호 등 특화된 관광·교육 콘텐츠로 관광분야에서도 소규모 힐링관광과 비대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삼척케이블카 178 조성사업, 도계 이개복도길 조성사업,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 가곡 유혈은천 및 캠핑장 조성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막대한 예산소요로 공공투자가 어려운 가정 산책부지 조성사업, 용화케이블카사업과 같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과감히 추진하고 장호비치캠핑장은 내년에 카라반 추가 설치 확충할 계획이며 축제와 연계할 규모있는 캠핑장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과학교시 프로젝트를 추진, 향후 액화수소 검사시험인증센터 유치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183억원을 투입하는 삼척시립 기차의 도서관 건립 사업은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상3층 규모로 삼척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SOC사업 추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관광객이 삼척해변 등 지역 명소를 쉽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하는 우회도로 기능으로써 속도감 있게 사업과 성숙상거리~차이중학교와 삼거리 구간의 확장사업 및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주민 편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덕지역 광태리 도로확포장공사, 하장지역 판문리 선형개선공사, 임원지역 도시계획도로, 갈천~중산간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특히 시가지 중심지역인 삼척우체국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기능뿐 아니라 아름다운 볼거리가 되도록 추진한다.

상·하수도SOC사업에는 하정상수도 확장사업에 160억원, 미로상수도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마무리되며, 미로, 하장지역 2단계 상수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올해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일상회복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도확장 사업도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용화·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50억을 투입하고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00억을 투입해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택지 및 아파트 공급 확대, 도심지 도시재생과 폐광지역 공공형 임대아파트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 건설을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ICT기업체, 연구관련 기업체, 수소산업 기업체 유치와 농공단지 확충에 따른 제조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살기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 유치와 시립 노인요양원 추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복합노인복지관 확충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해 귀농·어 마을 및 은퇴자 마을의 과감한 정착지원과 주택 융자금 차별화 지원을 추진하고 출생아 지원금의 차별화 지원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비 등 결혼자금 지원, 다자녀 공동주택 공급지원, 출산장려금 지속 지원, 육아수당 확대, 다자녀 가족 공공기관 특별채용 등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지역업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보전금 지원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삼척사랑 카드상품권 출시 및 인센티브 적용으로 올해만도 지역화폐가 2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지역화폐가 더욱 활성화 됐다.

광대지구 신규 농공단지과 수소 특화단지 조성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삼척 뉴스 브리핑

건설·시설 분야 1142억 투입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이바지

강원 삼척시는 올해 건설 및 시설 분야에 1142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부양과 각종 기반 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분청 및 사업소 1069억 원과 읍면동 79억 원의 시설비 예산에 대해 안전건설국장을 단장으로 건설공사 설계추진단을 운영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등 SOC 사업과 재난 예방, 교육, 도시재생, 수소 산업 등 건설·시설 분야의 60% 이상을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집행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기 불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과 민생, 경제, 관광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명품 도시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농지원부 제도개편 따른 농지대장 전환

내달 28일까지 접수 4월 15일까지 완료

강원 삼척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법 개정 안내문을 농지원부 세개구 603명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시는 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기주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되며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됐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되고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작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일원화를 통해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21세기를 선도하는 민의의 정당 속초시의회

임인년(壬寅年)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속초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 시민에게 믿음주고 신뢰받는 의회!

시민이 원하는 건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SOKCHO CITY COUNCIL

속초 설악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전국평생학습도시협, 자치교육 공동 선언

‘동네 한바퀴 스탬프 투어’ 진행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촌 일대에서 주민과 직장인,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나부터 걷자 동네 한바퀴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통과 지점은 이화52번가, 신촌바스케아, 신촌토끼굴, 바람산어린이공원, 신촌문화발전소, 신촌플레이비스, 신촌광과교래, 대천문화공원 등 8곳이다. 참여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워크온(walk on)’ 앱을 설치한 뒤 서대문 동별 걷기 커뮤니티 가입→캘린저 들어가기→나부터 걷자 동네 한바퀴(신촌동) 캘린저를 선택하면 된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투어 기간 내에 정해진 8개 지점을 지나면 앱에 자동으로 스탬프가 찍히며 이를 6개 이상 수집하면 경품 추첨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앱 스토어에서 추첨 쿠폰을 눌러야 한다. 구는 이번 투어에서 동네 환경을 생각 하자는 취지로 ‘신촌동 쓰담(쓰레기를 담다)’ 자율 미션도 부과한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기업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22년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전시 참가 기업에 최대 150만 원, 국외 전시 참가 기업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대상은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10개 사, 국외 전시회 참가 기업 5개 사이며, 부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전기·전화요금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 전시회는 참가비를 지원한다. 구 소재 중소기업 중 올해 전시회 참가 계획이 있는 기업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뒤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반려견 놀이터 재개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목줄 없이 함께 교감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27일부터 재개장한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했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편의시설 등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송파 반려견놀이터(삼천리로 22길 49)는 탄천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370평(중소형견 200평, 대형견 17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7시 까지(하절기는 18시까지) 운영연휴기간과 수방기간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특별 연휴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단,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은 휴무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목동동로 375)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타 기관(단체)에 공간지원을 받지 않은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또한, 공인인증 1.21) 기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 법인 주소를 양천구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입주기간은 1년이며,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구는 1차 서류 및 현장실사, 2차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2차의 입주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2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로 문의하면 된다.

‘롤루랄라, 마을학교 겨울나기’ 성황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 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주최한 마을학교 ‘롤루랄라, 마을학교 겨울나기’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6일 구에 따르면 ‘마을학교’는 학교 밖 마을에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짠다. 청소년들이 마을강사가 되기도 한다. 이번엔 2회째를 맞는 중구 마을학교는 지난 10일부터 2주간 구의 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열렸다. 문화예술클, 4차산업체험, 인문 등 총 3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마을학교에는 마을강사 30명과 수강생 129명이 참여했다. 구는 두 차례의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제3회 마을학교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미래교육 패러다임, 자치교육으로 전환할 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박성욱 오산시장)와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선언문을 발표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현안과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를 위해 65개 지방정부가 모인 행정협의회로 출범 5년째를 맞았다. 회장인 박성수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정책토론회’와 연계해 양 협의회 회원도시 간 자치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

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 도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교육 시대를 열고자 ‘자치교육 선언’을 했다. 선언문에는 ▲‘자치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촉구 ▲자치교육의 행·재정 체제 구축 노력 ▲기후변화, 인구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응한 다양한 협업 추진 등 ‘자치교육’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규정해 지역공동체 상생을 추구하는 다짐이 담겼다. 선언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65개 도시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182개 도시가 참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의 영상 축사에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참석해 ‘미래교육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자치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사항도 논의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제는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을 자치교육으로 전환할 때”라며, “진정한 자치분권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를 연결해 자치교육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자체 교육지원체계인 ‘송파샘(SSEM, Songpa Smart Education Model)’을 구축하고,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희박지



왼쪽부터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박성욱 오산시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자치교육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정부의 중요한 교육파트너로서 지역 교육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

경의선 책거리를 새롭게 운영할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경의선 책거리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만드는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의선 책거리의 경의선 흥대복합역사에 책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흥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와 구교까지 250m 구간에 9개 테마의 ‘책거리 산책(부스)’과 미디어북월(Media Book Wall)을 비롯해 각종 조형물로 채워져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경의선 책거리는 석탄을 실어 나르던 경의선 철도 부지에 문화가 스며들 책거리로의 변신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관광지로의 발돋

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경의선 책거리는 지난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사색의 공간을 제공해 마포구 대표 힐링명소로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12월 17일부터는 올 2년 13일까지 경의선 책거리 일대를 별과 달을 형상화한 빛 조형물로 꾸민 ‘경의선 책거리 겨울 빛축제’를 열고 시민들을 반기고 있다. 경의선 책거리 개장 후 5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5년간의 기록전(展)’과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5년간 61만 명이상이 찾은 경의선 책거리를 새롭게 운영할 위탁사업자

를 공개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상근 인력과 1억 원 이상의 자산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관련 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운영자 모집은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마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해당 신청서를 열람해 필수 제출서류인 제안요청서와 필요 서식 등을 마포구청 6층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경의선 책거리 사무국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인 1년 3개월 간 약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관악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목표액 조기 달성

1월 24일 기준 18억 원 목표액 초과…성금·성품 19억 200만 원 모금

서울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목표액 18억 원을 조기 달성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 지난 24일 기준 성금 8억 8000만 원, 성품 10억 2200만 원, 총 19억 200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18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로 모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는 결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 간 거리는 멀어졌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다. 타 지자체에 비해 고액 기부자 및 기업

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역 마트를 비롯해 지식들로부터 받은 운동용 모아오신 노부부, 동일업종 종사자들의 심심일만 모금액, 주민들의 자조모임 후원금, 익명의 기부자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도움의 손길은 다양했다. 여기에 구 공무원들 또한 어려운 이웃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은 모금액 9500만 원을 서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구는 이번 모금활동으로 모아진 성금·품을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성품은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및 관련 시설 등에 전달할

고, 성금은 위기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연중 지원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모아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모금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내달 14일까지 이어진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과 기업, 단체는 구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성금 기탁은 관악구 공식 계좌(우리은행 015-176590-13-518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하면 된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성동구, 성동형 스마트쉼터 필수 기능 갖춘 소형모델 설치 운영

냉난방·CCTV 원격관제 등 4월까지 20곳 설치 교통복지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선보였던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필수 기능만 담아 소형으로 시범 설치하고 이달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동구청 인근 마올바스 정류장에 설치된 ‘스형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 휴대폰 유무선 충전, 공공 WiFi, CCTV 원격관제 등 필수기능만을 담은 모델로 기존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약 41%(5.94m)의 규모로 작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버스 승차대의 고유기능에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정보통신기술(CT)을 접목한 미래형 버스승차대로 실시간 버스도착 역상 등 교통안내와 냉난방, 미세먼지 정화

등의 기능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V살균 방역기능까지 장착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추세에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한파와 폭설, 추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첫 설치(20.8) 이후로 현재(22.1.16)까지 누적 이용인원 18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이용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달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94%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이용 목적에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의견이 76%까지 나왔다. 모든 정류장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답변과 함께

좁은 보도면적에 맞게 작은 규모로 설치해 달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높은 이용만족도와 주민의견에 따라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소형모델을 마련한 구는 오는 4월까지 지역 내 주요 정류소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의를 적극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교통브랜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주민어는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통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uw@jeonmae.co.kr**

영등포구, 문턱 없앤 외국인 전용 백신접종센터 운영

오늘부터 3월 31일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의사·간호사 등 6명 근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림동에 위치한 영등포구 보건소(디지털로 44)에서 등록 외국인인 물론 미등록 외국인까지 원스톱으로 접종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외국인 주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인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 전용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현장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대상자 등록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1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한다. 접종 대상은 외국인이면 누구나 추가 접종은 물론 1차와 2차 접종도 가능하다. 백신은 화이자(pfizer)사를 비롯해 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근무인원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포함해 6명이다. 진료시간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시간을 고려해 하루 150명 내외의 외국인이 접종을 받을 전망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종로구 ‘체감형 자녀 양육 정책’ 추진

바우처·현금·제로페이 포인트 등으로 양육 관련 지원

서울 종로구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들이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바우처, 현금, 제로페이 포인트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첫만날 이용권’, 영아수당,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만날 이용권’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4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산후조리원이나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수당’ 사업은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는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한다.

구는 이동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19일 당 월 10만원씩 제공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4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시행하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신입생(학부교)에게 20만원의 제로페이 포인트를 제공해 필요한 의류나 도서 등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은 자율러를 한해 곳곳에 아이들 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영유아프로그램, 부모교육을 선보일 센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구는 영아파트 내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갖는 어린이놀이터 ‘육인동 아이꿈뜰’, 영유아 돌봄을 위한 양육 거점 기관 ‘육아윌람센터’ 등을 상반가에 개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서울시의회, 5급 공무원 임명장 수여

4급 공무원 이어 5급 공무원 49명 대상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5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소속 5급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서는 의장 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 및 전문위원실 소속 전문위원 등 49명이 의장명의로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를 마친 김인호 의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간관리자는 조직 구성원간의 가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전보다 향상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건강관 견제와 감시



김인호 의장이 5급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가 계속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광진구, 설 종합대책 등 8대 분야 추진

24시간 재택의료전담반·선별진료소 운영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2022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28일 부터 내달 9일까지 7일 동안 ▲훈훈한 설 보내기 ▲물가안정 ▲교통 ▲제설·한파 ▲안전·화재 ▲의료·보건 ▲생활불편해소 ▲공직 기강 확립 등 총 8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 체계 유지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점검 강화를 중점으로 세웠다. 구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위해 광진구 보건소, 중곡·자양보건지소,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 등 4곳의 코로나 19 검사소를 운영한다. 광진구보건소와 중곡보건지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 등 4곳의 코로나 19 검사소는 운영한다. 광진구보건소와 중곡보건지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양보건지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진광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설날 당일은 자양보건지소와 광진광장은 동일하게 운영하며 광진구보건소와 중곡보건지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해 1월 31명씩 155명이 근무하고,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758명이 투입된다. 재택치료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역 내 **이신우 기자 leesuw@jeonmae.co.kr**

중소기업 소상공인 용자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총 57억 규모의 용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62개 업체에 총 227억 9200만원의 용자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용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7억 규모로 대출금리는 지난해 1.5%보다 0.7%를 낮춘 연 0.8%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30억 규모로 은행 대출금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구정이 금리의 최대 1%를 보전해준다.

신청 자격은 사업장을 구로구에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구는 최근 4년 내 용자 지원 신청 여부, 신청 금액, 우대항목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올 3월부터 용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생리용품 지원 9~24세 확대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 지원 사업' 대상을 만 9~24세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상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청소년 대상자 본인 혹은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설날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날 연휴 기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청소대행업체가 휴무에 들어간다고 따라 일반생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일간이다. 연휴 기간 중 배출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2일부터 배출하면 된다.

구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30일에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또한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청소대행반을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특화사업' 공모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월 7일까지 중장년층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특화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양천구 인생이모작 분야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사회복지기관)이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모분야는 양천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생이모작 특화사업으로 일·활동지원교육, 취·창업, 사회공헌활동에 특히 중점을 둔다. 중장년층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들의 해안을 모아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프로그램별 지원규모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2월 7일까지 해누리타운 5층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70)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참가자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특수체육교실'을 운영하며, 참여자를 오는 2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특수체육교실은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각 반별 주 1회 2시간씩 영등포구제1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전문 생활체육지도사의 지도 아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생활체육지도사의 커리큘럼에 맞춰 맞춤형 체육 지도를 받게 된다. 이번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운동 종목으로는 ▲수련(나무토막을 손으로 관문에 밀어 넣는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 ▲보치아(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스포츠타겟(킥을 찡고 내리면서 기록을 측정하는 스포츠) ▲다트 ▲닌텐도 Wii(무선 스포츠 등)이다.

도봉구,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반대성명

이동진구청장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도봉구간 지하화를 명백히 위반한 것”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감사원에서 GTX-C 노선의 서울 전 구간 지하화가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지상화 결사반대를 성명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km에 이르는 민간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포함돼 2020년 10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 중의 하나다.

이동진 구청장은 “C노선 사업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도봉구간 지하화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사업의 혜택 주체여야 할 도봉구민의 안전

과 편의를 외면한 처사다.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교통부의 사업변경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모인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허슬기)' 주민대표들과 이동진 구청장, 이재근·오기형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은 25일 종로구 삼정동 소재 감사원 앞에서 지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낭독하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km의 소음, 분진, 진동 등



GTX-C노선도봉구간지상화결사반대투쟁위감사원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도봉구제공)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라 지적했다. 또 도봉 구간을 지나는 1호선 전철이 현재도 하루 2600회 운행되는 상황에서, GTX-C 노선이 추가 운행된다면 두 노선

간의 간섭으로 인한 운행 간격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SRT 연장선(수서-의정부) 역시 GTX-C 노선을 공유하므로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결과적으로 1호선,

GTX-C, SRT 세 개의 노선을 공유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당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서울 전 구간을 기존 선로의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정했으며, 경제성 지표인 B/C도 1.33으로 매우 높게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돌연 계획이 변경됐다.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추가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돼야 하지만 도봉산역-창동역 5.4km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은평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2024년까지 기한 연장

국내 유일 서울 도심 '한문화체험특구' 2차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북한산성 일대 한문화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호명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지정기간이 2차 연장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특구 지정 기한을 연장 승인한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는 서울 도심에서 한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국내 유일 특구로, 지난 2015년 첫 지정된 이후 2019년 1차 연장됐으며 이번 2차 승인으로 2024년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발전과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구 지정기간 연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지역특구 운영 실적을 평가해 승인한다.

구는 은평한옥마을, 북한산성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문화 콘텐츠 육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번 특구 기간 연장 승인에 성공했다. 이번 연장 승인에는 특구 지역 확대 내용이 포함돼 새로 편입되는 곳

은 한국고전번역원과 사비나 미술관 지역이다. 구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구 운영 방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진관동 한옥마을과 북한산성마을 일대 약 64만 250㎡ 면적에 총 364억 원을 투입해 총 3개 분야 13개 특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 바 있다.

향후 구는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국립한국박물관과 기차촌 주변의 예술마을을 특구 지역으로 추가 편입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 위주 특구에서 교육, 체험, 학습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가진 특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건국대 행정대학원 제61대 원우회장 김미정씨 취임

‘도전은 삶의 원동력’...가사·직장·학업·봉사활동 커리어우먼

“배움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61대 원우회장에 취임하는 김미정씨(60·사진). 김 회장은 28일 원우회장이 취임식 자리에서 화합과 소통에 방점을 둔 건대 행정대학원 원우회 운영 로드맵을 밝힌 예정이다.

고교를 졸업한 후 20대부터 35년 동안 기업경영에 참여해 온 김 회장은 주경야독으로 한국방송통신대(유아교육과)에 입학, 졸업(2011년)한 후 현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사회복지학과 5학기)에 재학 중인 늦깎이 대학원생이다.

“도전이 저의 친구이고, 삶의 원동력”이라는 김 회장 체 무언가 꿈꿔왔던 건대 동문회(김동문육성회)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강동구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강동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강동구지회 등 사회단체에서 폭넓은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가사와 직장, 학업 그리고 봉사활동을 완벽하게 해내는 커리어우먼 중 한 명이다.

희생을 바탕으로 주변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 회장의 바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공공체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그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도맡아 척척 해내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김 회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매진하고 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동작구, 2022 설 종합대책 마련...28일부터 중점 추진

이창우구청장 “주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설 명절을 맞아 '2022 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교통소통, 물가안정, 생활대책부터 코로나19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구민 안전, 소외되지 않는 훈훈한 명절을 위한 이웃나눔 총 5개 분야를 꼼꼼하고 철저히 추진한다.

이창우 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과 생활 곳곳에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서구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는 교통흐름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동작초등학교 등 10개교의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4곳(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보라매병원 앞, 동작맛마을, 동작구청), 거주지우선주차장

을 무료로 개방해 주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더한다.

내달 2일까지 제수용품 및 우수용품 할인 행사, 사랑의 떠나눔, 경품행사 등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를 개최하고, 양질의 축산물, 과일 등 설 제수용품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확진자·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 관리 등 24시간 비상방역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한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노원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2단계 상승 '우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보다 단위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등급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했다. 특히, 부패방지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성과 과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은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와 전직원의 청렴교육 여부, 부패방지제도 운영,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반부패 정책성과는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과 반부패계획의 성과 이행여부로 결정되는데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했다.

또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구민감사관 참여 활성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개선 방안 장치 마련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결과 분석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강서구, 오늘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보고

아동참여위원들이 지난 1년간 마련한 3개 분야별 정책 발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 보고회는 지난 1년간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직접 토론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정책을 구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교육, 인권, 문화 등 3개 분야별 아동들이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직접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하며, 학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진행되는 컴퓨터, 논술, 외국어,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

한다. 인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화된 아동학대 예방법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방문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상담 실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 홍보 및 포상금 증액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이날 정책 보고회에서는 강서구 청소년 문화지도 제작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축제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제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아동참여위원들은 물론 구 정책 관계자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제안 내용을 듣고, 정책 반영 여부를 설명한다.

또한 이날 정책 보고회에서는 올해 새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 6명의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7일 오후 3시 학부모, 장애인 단체 등을 모시고 개관식을 갖는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면적 780㎡ 규모로 용산구 보건분소(백범로 329) 4.5층을 재단장한 시설이다. 4층에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실, 조리활동실, 5층에 일반교실(5개), 특별활동실, 개발활동실, 심리안정실 등을 갖췄다.

정원은 30명(반별 정원 6명), 학업기간은 5년이다.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1개 반에 2명씩 배치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 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과 선택과목(영어, 문화, 스포츠 등)으로 구분된다.

17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입학을 앞두고 (2월 3일 개강) 있다. 입학생은 지역 내 주민(현재 모집 중)을 우선 선발하며 정원 중 20%에 한해 다른 지역 주민(모집 마감)도 입학이 가능하다.

시설 위탁기관은 공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은누리복지재단(대표 송영범)으로 정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포토뉴스



'강남아트홀런지' 한부모 가정 간식 기부

서울강남구(구청장 정순균·기문데)가 '강남아트홀런지' 후원사인 갤러리배백화점, 호식이두마리치킨과 함께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1300만 상당의 간식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진행된 '강남아트홀런지'는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사진과 필승 테그(강남아트홀런지)를 SNS에 인증하면 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금이 쌓이는 캠페인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광진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나눔 실천'

서울 광진구의회(회장 박삼례·기문데)는 25일 오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삼례 의장을 비롯 전은혜·장갑천·박순복·김미영 의원과 대한적십자사서울시광진구협의회장,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장 등 적십자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용산구-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5일 구청 9층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맺었다. 구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경기 프로젝트 비대면 운영

인천 용진군은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 켜진 사람들을 위한 경기 프로젝트로 내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비대면 함께 걷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일상에서 각자 편하게 걷는 것으로 14일 동안 1일 3000보씩 총 4만2000보 걷기를 시행하고 목표를 달성한 모든 이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걷기 습관 형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걸을 수 있는 목표 설정과 걷기 참여를 유도해 2022년 용진군의 첫 번째 걷기 행사를 시작한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용진군민 걷기방', '용진군청 걷기방', '용진군 청소년 걷기방'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탭에서 확~찐자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걷기를 실천하면 된다. 워크온 예약은 27일부터 가능하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목욕장업 22개소 성수기 집중 방역 점검

인천 연수구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 대책 시행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목욕장업 2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성수기 집중 방역 점검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변경된 방역수칙 안내, 기존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시행했다.

현재 목욕장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출입 시 백신접종 완료 또는 48시간 이내 PCR검사 후 음성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용자 간 사적 대화 자제와 1M 거리두기 등도 강력 권고된다.

또, 목욕장 내에서는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외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물·무 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세선사의 마스크 착용, 시설 내 6인 초과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칙은 내달 6일까지 유지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목욕장업, 업소 영업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변동되는 방역수칙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인천 계양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2022년 자활 지원계획, 가족관계 해체 가구 등에 대한 수급자 선정 및 보장 비용 징수 제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및 연장 결정, 2021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수급보장 및 긴급 지원 대상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올해 4만8722세대 6만5838명에 대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조사해 구민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구민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30일 수도권 폐기물 반입 허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휴일인 오는 30일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이번 설 연휴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반입 계획을 마련했다. 당일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 잔재 폐기물 등으로 광산쓰레기 제외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설 연휴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

인천경찰청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내달 2일까지 닷새 동안 관할 고속도로에서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기간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지에 교통경찰관 등 30여 명을 매일 배치하고 양행순찰차 4대와 헬기 1대로 투입한다.

경찰은 헬기에 장착한 '항공공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갓길 주행과 끼어들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찰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양행순찰차는 과속·폭 운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고순대 관할 고속도로는 제1·2 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모두 8곳이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특별교통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에 위협하는 지정차로 위반·갓길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시자치경찰위, 설 연휴 종합치안 '만전'

경찰청과 범죄·사교 선제적 대응...1인 가구 밀집지역 등 취약요소 맞춤형 가동...이동하다 등 고위험군 재발방지 점검...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 집중되는 치안 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 경찰 모든 기능의 역량을 집중된 종합 치안활동에 나선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과 협업, 설을 맞아 각종 범죄와 사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달 29일까지 '설 연휴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범죄취약 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등 범죄기간 대표 취약요소에 대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신고가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련기능(여성·112·형사)간 협업,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모

니터링 결과, 최근 신고 이력,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 고위험군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 수반 사건은 즉시 수사 착수·진행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현장출동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련 대상은 증가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건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보이스피싱 등 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 복귀 지원을 실시한다.

실제로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

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시민층에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부산에 모여 무임승실 비용의 국비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경제총공사 제공>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무임승실 국비지원 촉구

갑수복 심화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실 비용의 국비 지원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부산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교통공사 정희용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실 국비 지원 촉구 및 정책건의문 결의'를 발표자 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동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행사에는 박병준 부산시장과 이 현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동이사 등이 참여, 국비 보전을 위한 뜻을 함께 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실이 보편적 교통복지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담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도시철도 무임승실 비용 지원 촉구를 위한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의 명의로 채택된 도시철도 무임승실 국비 보전 정책건의문은 오는 9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 주 중 여·야 대선 캠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정희용 사장은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가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긴밀히 협력, 무임승실 국비 보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의회 교육위, 학교 공기질 개선 앞장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각종 학교 공기질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는 최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설명회'를 온·오프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위 소속 김진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설명회는 국민대학교 한화백(기계공학) 교수, 경희대학교 조영민(환경공학) 교수, 연세대학교 임영욱(환경보건학)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현분(구조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으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관련 담당

공기정화장치 설치 설명회 온오프 진행 장소별 선택·설치 방법 등 토론 펼쳐

자들과 공기정화장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등은 온라인으로 각각 참석,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해 열린 논의를 펼쳤다.

설명회는 교실 내 공기정화기 및 다목적강당 내 공기순환장치 설치와 관련, 공기정화장치의 정의와 분류, 장소별 선택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했다.

또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 시의원들도 참

여, 큰 관심을 보였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학교 내 공기질 개선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김진규 의원은 "설명회를 통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학교 상황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본격 돌입' <上>

해양쓰레기 집하장 5곳 추가 설치·처리비 지원 등 실시

전년비 43% 증가한 147억 예산 투입

인천시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약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다 43% 늘 증가한 규모다.

시는 지난해 약 104억 원의 예산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통해 약 5200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했다.

또 시는 해양·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해 3월 환경특례시 추진단을 신설, 해양쓰레기

기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6월에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를 공포해 해양쓰레기 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0월에는 한강에서 인천양바다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 및 서울·인천·경기도와 분담금 55억 원을 58% 원으로 3억 원 증액하는 '인천양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 인천양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발생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수거·처리 기반조성, 관리

기반 강화, 시민의식 제고 등 주요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해안가 주요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3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구역도 동진군에서 중구, 서구, 용진군으로 확대한다.

박영길 시 해양환경국장은 "어선들이 조업활동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에는 지난해 보다 200% 증액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지원 사업도 지난해 보다 98% 늘어난 5억80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검침원 미방문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행

6만3000전 수용가 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올해 6만3000전의 수용가에 대해 검침원이 각 수용가를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유수율 관리지역, 남검침, 원거리 지역 등 6만3000전에 대해 1차적으로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강화 및 북부지역 등에 4만8000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4만 수도점 중, 26%에 해당하는 11만3000전에 대해 원격 수도검침을 실시하게 되며, 오는 2023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체 43만 수도점의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원격 수도검침을 통해 시·군·구별 수돗물 사용량 정보를 수집 가능하게 되고, 비대면 검침에 따른 검침원 시정비용 및 사생활 보호, 신속한 누수탐지, 유수율 분석을 통해 경영효율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독노인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수도물 사용패턴을 모니터링해 위기상황의 조기 발견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미터 교체와 통신노선기 설치 작업을 위해 설치업체가 최소 2년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항·인천공항 무역액 2916억달러

역대 최고치...전년비 29.6% 증가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한 무역액이 291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세관의 무역액은 전년보다 29.6% 증가한 수치다. 수출액은 2020년보다 28.1% 증가한 657억달러, 수입액은 30.3% 늘어난 1159억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인천공항(항공)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325만톤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물동량은 16.4% 증가한 160만톤, 수입 물동량은 22.9% 증가한 165만톤으로 집계됐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서구, 따뜻한 겨울나기 '서로도움' 목표 95% 달성

675명 794회 기부 1328만원 모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인천 서구는 최근 지역화폐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으로 모금한 1328만 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따가 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을 기획해 운영했고 총 675명이 794회 기부에 동참해 1328만 원을 모금했다. 당초 목표액 1400만 원의 95%를 달성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위한 모금에 개시 열흘 만에 목표액 5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금한 모금액을 가정폭력 피해자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모금가정, 치료 비용이 큰 치료자,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에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검단노인복지관 독거노인 한과 나눔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20년 12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화폐 '서로도움' 내 기부플랫폼 '서로도움'을 선보였다.

'서로도움'은 앱 활용으로 쉽게 소액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 등 혁신과 편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 중구월드장학회에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월드장학회 제공>

인천 중구월드장학회, 지역사회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인천 중구월드장학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월드장학회는 26일 중구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서 서영자씨 1000만 원, 인천항만물류협회(이사장 진혁화) 1000만 원, ㈜은상개발 서영호 대표 500만 원, 대양종합건설(대표 김귀성) 100만 원, ㈜재영건설(대표 엄혜찬)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영

자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년 동안 분포히 모은 1000만 원을 기탁, 진지한 감동과 주고 있다.

홍인성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밝히려고, 미래의 인재들을 향한 끊임없는 따뜻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이 될 것이므로, 응원에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부평구, 봄편 공감글과 당선작 5편 시상

최우수상에 남우숙씨 창작시 선정

인천 부평구는 최근 2022년도 봄편 공감글과 최우수상에 남우숙씨의 창작시를 선정하고, 시상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상은 봄이 오는 길 골포전을 걷자 / 황금맹꽂이도 반가워서 풀쭉쭉! (창작)의 김경진씨와 '기적지 마고 살아봐 / 꽃피워봐 / 참 좋아' (나태주·풀꽃)의 양현경씨가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어린 꽃잎 하나, / 땅 위로 수

줍은 얼굴을 내미는 계절' (창작)의 김지연씨와 '나무는 꽃을 떨어뜨리고 / 더 큰 꽃을 피워낸다 / 나무는 온몸으로 꽃이다' (이문재 '큰 꽃')의 안성연씨에게 돌아갔다.

구는 최근 '공감글선정대상 회의'를 열어 총 212편의 응모작을 심사했으며, 이 중 5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수상 은누리상품권 30만 원, 우수상 부평e음 카드 20만 원, 장려상 부평e음 카드 10만 원이 전달됐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IF, 영종하늘도시 내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공모

IF(인천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내 A6블록에 '분양기획형 분양전환형 공공자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모'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29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입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IF는 1차 시범사업자인 검단 AA27, AA30 블록에 대해 작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11월 우선협상대상자(검단 AA27 금성백조, AA30 제일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했고, 2차 후속사업으로 영종 A66 블록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누구나집은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

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로 10년 동안 임대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IF 이승우 사장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분양권(양전환) 가격도 사전에 확정,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에게 유리한 주택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토지 발굴을 통해 후속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준공

경남 진주시는 지난 25일 평거동 둔치 아외 무대에서 남강둔치(광거·산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천수교~회망교 간 총연장 1.9km로 약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1년 6월에 착공해 이날 준공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너비 5m의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해 7.5m로 확장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조규일 시장은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리방안 모색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남강둔치를 따라 형성된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걷터,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전거도시 진주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설 연휴 학교·소속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대구교육청은 설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귀성객의 편의 제공과 주차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및 소속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설 연휴에는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 및 소속기관 348곳이 시 전역에 걸쳐 주차 시설 개방에 참여하며 개방 학교(소속기관) 및 개방 시간은 공공데이터포털 및 공유누리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개방하는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관리 인력없이 운영이 되므로 이용자들은 긴급한 경우와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둬야 하며 안전 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해야 하고 화장실 등 실내시설 사용은 제한된다.

김중하 학교운영과장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만큼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방지에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신미경기자 shinmi@jeonmae.co.kr

영양읍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경북 김천시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영양읍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영양읍 자동차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4시 사이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송사업자에게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여수시, 오미크론 차단 총력... '긴급 이동멈춤' 호소

권오봉 시장, 설 연휴 기간 내 오미크론 조기 차단 분수령 시 역대 최대 확진자 발생... '전 시민 일제 자가검사 추진'

전남 여수시가 28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긴급 이동멈춤'을 시행한다. 권오봉 시장은 이날 영상 브리핑을 통해 “25일 역대 최대인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비상상황”이라며 “오미크론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이동멈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오미크론이 먼저 시작된 목포시의 경우 이날 4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며 20여일 만에 1116명이 발생했다”며 “시도 설 연휴 기간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 큰 고통을 막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설에는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러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친지, 지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일상 복귀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가 빠르고 무증상이 많아 본인도 모르게 전파자가 된다”며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외지인 유입

이 있기 전 오미크론을 조기에 막기 위해 명절 연휴 전날인 28일까지 '전 시민 일제 자가검사'를 진행해 감염의 고리를 끊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틀러 “공공기관, 산단, 기업에서는 직장단위로 전 직원 자가검사 실시, 읍면동에서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마을과 아파트 방문을 통해 일제 자가검사 추진,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실천위원회와 자생단체에서도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시는 당분간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운영도 중단하며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주 책임하에 모든 직원이 자가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설 연휴 이후 관바로 개학하는 학교는 바로 등교하지 않고 당분간 원격수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수/ 윤정호기자 sss2969928@jeonmae.co.kr



전남 순천시산림조합이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서면 학구리 정척마을 고로쇠 채취 현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열의를 쏟았다.

순천시산림조합, 임업인 경영지도·일손돕기 '구슬땀'

정척마을 고로쇠 채취 현장 방문

전남 순천시산림조합이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서면 학구리 정척마을 고로쇠 채취 현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열의를 쏟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조종복 조합장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은 고로쇠 채취를 위한 현판제작, 유출기

삽입 작업 등을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구인난에 이어 고로쇠 수확 가격 하락으로 이 중고를 겪고 있는 임가에 일손을 보냈다.

서면 학구리 정척마을 고로쇠 작목반 반장 윤명열씨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종복 조합장은 “일손돕기가 조합원 임가에 드리는 근심도 겸어 울려 주

기 바란다”며 “임업인을 위한 지도사업과 금융서비스 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임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산림조합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산림경영지도의 날로 지정, 사유림경영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일명기자

'2022 목포 뮤직 플레이' 문화관광 신상품 선봬

갯바위문화재단 10월 개최 예정

전남 목포시가 올해 음악으로 문화관광 신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 갯바위문화재단에서 '2022 목포 뮤직 플레이'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목포음악축제(TF)팀을 신설했다.

근대문학의 산실로서 지난해 문학의 주제로 전국 최신훈예회를 개최해 문학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점한 시는

'2022목포 뮤직 플레이'를 통해 대중음악의 산실, 힙합음악의 출발점이라는 위상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기본계획 구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시는 앞으로 시민, 전문가 등과 협업체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목포 뮤직 플레이를 짚아주며 개최할 예정임에 따라 흡수해 개최되는 '문화박람회'와 함께 목포에서는 해마다 가을에 대규모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의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스마트화 앞장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경남 의령군은 올해부터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도물 공급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통합운영 체계를 구축, 수질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기반시설을 갖추는 시스템이다.

군은 지난해 환경부 국고보조 공모 사업을 신청해 2022년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올 상반기 실시할 계획 및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실시간 수질감시 및 관리를 위한 재질수질, 정밀여과장치, 수질 측정장치 구축, 수질운영에 따른 위기 대응 자동드래인 및 관세장치 설치, 각종 수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유량계, 스마트 미터링 등이다.

의령/ 최판규기자 cnpag@jeonmae.co.kr

나주시, 계약심사제도 '잘했다'

전남 나주시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13억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가 심사기준 금액에 따른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해 지난해 총 348건, 788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매년 개정되는 표준품셈 등 관련 자료와 사업 목적,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공법 적용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특히 간역 위주 보다

지난해 예산 13억7000만원 절감 총 348건 예산 운영 투명성 제고

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검토, 부실시공 예방, 품질 향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적정 사업비가 집행됐는지 중점 검토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사 10억8000만 원, 용역 2억1000만 원, 물품 8000만 원 등 총 13억7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

이들러 지난해 9월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심사 대상 범위를 5000만

원 이상 민간저보 보조사업 분야까지 확대 시행해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 관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시 관계자는 28일 “절감된 예산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편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와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 적용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나주/ 변대중기자 beam@jeonmae.co.kr

광주시 '설맞이 시가지 청결 종합대책' 오늘부터 실시

내달 7일까지 청소기동반 등 운영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시가지 청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를 집중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시가지 대청소 및 청소상황실·청소기동반 운영, 연휴기간 수거일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 차량, 진공흡입장치차량 등 노면 청소차량 20대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 900여명이 격일로 특별근무를 하며 시가지 청소를 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이와 함께 시와 5개 자치구는 48개반 102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과 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시가지 청결 상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성호기자

Advertisement for '방역패스' (防疫패스) system. Features include: 1. QR code verification for COVID-19 prevention certificates (COOV 앱 등). 2. PCR positive confirmation certificates. 3. COVID-19 completion certificates. 4. Pre-arranged PCR positive certificates for 18 years and under, and high-risk individuals. The ad also includes a QR code and a person pointing to the text.

홍성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홍남 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을 오는 6월 까지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엔 발행되는 홍성사랑상품권은 총 135억 원 규모로 월별 할인판매 한도를 설정해 판매할 예정이며 구매 할인 한도는 개인당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내달 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지류 상품권은 내달 3일부터 판매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령대 경제과정은 "홍성사랑상품권이 위촉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최성희기자 sgchoi@jeonmae.co.kr

설 연휴 공영주차장 32개소 무료 개방

경기 군포도시공사가 설 연휴인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공사가 관리하는 주차장 중 월정기 전용 주차장 10개소(명화, 당정노의, 당정3, 당정7, 당정8, 당정9, 당정10, 당정11, 동백길, 산본전 월정기구역, 군포고가교북3)를 제외한 32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사는 매년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돕고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립 이용 시민의 주차 질서 준수 및 안전사고 주의, 쓰레기 가져가기 등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에 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콜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일요일(30일)과 설 당일(내달 1일)에는 콜 상담 및 당일 예약이 불가하며 예약된 차량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 개최

홍남 보령시는 설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수부에 특별전 행사 참여를 신청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6000만 원을 확보했다. 행사 기간 중 전시장인 대천항 수산시장 내 138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으로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보령/ 이연경기자 leegy@jeonmae.co.kr

이천시, 민생안정·일상회복 주력

염태준 시장, 올해 중요 시책 밝혀 남부권에 2025년까지 355억 투입

염태준 경기 이천시장은 26일 민생안정과 회복, 시민불편 해소,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염 시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까지 2년여에 걸쳐 관내 42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동네 한바퀴 대장정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지적인 불편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펼쳐졌다"며 "채무 없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민선7기 시민과 약속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균형발전, 시민편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보다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민생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일자,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회복을 지

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적 치유사업,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수립 등 방역과 일상회복의 조화를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5년까지 355억 원을 투입해 각종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내년 말까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 운영,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등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42개의 마을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한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참여로 변화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강화, 여성비전선

터와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노인·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모든 일생을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도 내놨다. 정개산과 원적산, 백사 산수유마을을 연결한 이천형 대표 둘레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특성화시장 도약지원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된 예스파크 상점가를 도자기 관광 명품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올해 화두를 '이웃이 모여 바디를 이룬다'는 의미의 노력성제로 정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과 일상의 회복을 역점과제로 행복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지일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강원 정선군의회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림의 발전 방류 재개 움직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선군의회 제공>

정선군의회 "도암림 발전 방류 재개 반대"

강원 정선군의회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림의 발전 방류 재개 움직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본적인 도암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도암림의 발전 방류 재개 움직임과 관련 성명을 통해 "최근 한 수원이 군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조류 제거제 '루미나이트' 살포와 방류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생

성명서 발표·문제 해결 촉구 목적 "루미나이트 관련 논의 즉각 중단" 명을 위면한 행위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 국무조정실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가 도암림에 대해 홍수조절용 기능 전환, 수질개선, 댐 내 퇴적물 준설 등을 결정했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예산

부담, 수질개선 이행 주체 등 책임 소재 공방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국무조정실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의 합의 사항 이행, 도암림 피해에 따른 주민 지원 법제화, 루미나이트 살포 계획 및 발전방류 논의 즉각 중단, 기상이변에 따른 도암림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정선/ 최재희기자 jhchoi@jeonmae.co.kr

동해항 무역실적 25억 달러 넘었다

수출량 전년 대비 123% 증가

강원도 수출이 지난해 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동해항을 통한 연간무역액 역시 25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동해항을 통한 연간무역액은 수출 5억3788만 달러, 수입 20억8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분담률도 수출 20%, 수입 46%를 각각 차지, 강원무역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해항을 통한 수출이 전년 대비 123%나 증가하는 등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수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항의 수출 증가는 금액의 증가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비해 내용적으로 충실해지고 인지도가 향상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이천까지 시멘트와 합금철이 동해항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면 지난해의 경우 전년 34%, 시멘트 25%, 합금철 17%, 수송기계 13%, 화장품 3% 등 수출 품목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품목 간 균형도 향상되고 있다. 수출 품목의 다양화에 따라 수출 대상 국가도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벗어나 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만 수출이 1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국가별 수출순위 3위를 기록,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동해항의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 최호영 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은 "단기적으로 동해항이 강원 수출의 30% 이상을 분담하는 것은 목표로 컨테이너 항로 개설 등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수출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타 지역 항만으로 빠져나가는 강원도 수출입화물을 동해항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이효경기자 leekh@jeonmae.co.kr

안양시, 예비창업자·초기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지원

4인 미만 기업 최대 2년

경기 안양시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게 사무공간(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주소지, 우편함, 사무기기 등을 지원하는 '2022년 창업지원 가상오피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담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게 안양청년창업센터 내 동안청년오피스의 창업인프라를 이용하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무료 제공과 함께 인턴인턴지원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컨

설팅, 멘토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으로 4인 미만이며 자원기간은 최대 2년 이고 가능한 업종은 SW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 지식산업, 콘텐츠산업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들이 사업초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등의 고정 비용의 부담을 없애고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고도화를 통해 시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강원교육청, 고교학점제 기반 강화 팔 걸었다

강원교육청은 26일 2022학년도 일반고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2023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량 적정화(1.02 학점),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제도 등 고교학점제 요소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2022년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세워 이에 대비하고 학점제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반고 84개교 중 66개교가(78%)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연구·선도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예산 지원 및 담당자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준비도를 높인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壬寅年(임인년) 2022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행복이 가득하고 행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용인지사 후원회-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30대에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미성년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 "피해자 몰랐어도 유죄"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심서서 같은 취지로 판단

대선지법 형사5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적 모략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선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이재필기자



강원 태백시·영월군 정선군·도계를 번영회,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26일 연석회의에서 강원랜드 사장·부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강원랜드 사장·부사장 상생 외면 망신 그만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폐광지 주민단체들 퇴진운동 돌입 이 사장 “소통 부족 지적 받아들여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

강원 태백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가 강원랜드 사장과 부사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성명에서 주민단체들은 “지역 상생을 위한 사장의 진솔한 사과와 상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요구는 결국 목숨졌다”며 “이에 이삼걸 사장과 삼규호 부사장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부사장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부터 사장과 부사장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에 돌입할 것”이라며 “사장과 부사장은 더 이상의 망신을 초래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경기특사경, AI 확산 차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김민경 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 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중국 아파트서 콜센터 운영 보이콧 일당 10명 검거

경기남부경찰, 중공안과 공조 한국인 236명에게 83억 뜯어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콧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한국인 6명과 중국인 4명 등 10명이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보내 문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전화가 오면 소비자보호센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추가 피해가 우려”라거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교통연구, 설 이동계획 조사결과 287만명 이동 작년보다 17%↑ 10명중 9명 “자기용 이용하겠다”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인원이 작년보다 17%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자가용 선호가 두드러져 고속도로가 혼잡을 빚을 전망이다.



비 약 17.4% 증가한 규모지만 2020년(650만 명)보다는 28.2% 적은 것이다. 설 당일인 내달 1일 하루 평균 이동량이 531만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응답자 90.9%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462만대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설과 비교하면 11.6% 적다. 또 가장 많은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8.2%), 서해안선(14.1%), 중앙선(10.2%), 호남선(7.9%) 등의 순이었다.

김영민기자 kym@jeonmae.co.kr

사건·사고

인천 외국인 밀집지역서 방역위반 36명 적발

인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모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여성 A씨와 손님 2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용출물 인근서 70대남 숨진채 발견

경기 고양시 북한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북한산 용출물 인근에서 “함께 산행하던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승미중 낙마 사고 60대, 100여일만에 사망

경북 구미에서 승미하던 중 낙마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100여 일 만에 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오후 2시 40분께 구미의 한 승미장 부근에서 A씨(63)가 승미 중 말에서 떨어졌다.

보호자없는 학원차서 내리던 초등생 또 숨져

초등학생이 음의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여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제주 서부고속도로 제주방향 119구역을 달리던 A양(9)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2022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부평구민과 함께. A promotional banner for Bupyeong-gu featuring a family walking in a park. The banner includes technical details like REC, FPS 60, HD 4K 8K, and ISO 100 F3.5.

동정

청년 네트워크 전체 회의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27일 오후 7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년 네트워크 전체 회의에 참석.

미래 배터리 분야 기술개발 협약
최문경 경북 영천시장은 27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북자동차산업캐드연구소, TVU 라온랜드 코리아와 미래 배터리 분야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

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 업무협약식
이연희 충남 서산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2시 30분 부서면 현대대서비스 홍보관에서 열리는 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 업무협약식에 참석.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안전교육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27일 오후 1시 40분 이슬공원에서 열리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 및 안전교육 현장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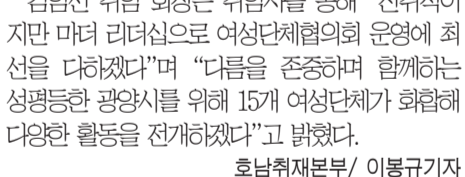
농업인 실용 교육장 방문
김도곤 충남 청양군수는 27일 오후 2시 화성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 교육장을 방문한다.

생활보장위원회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7일 오후 3시 30분 군청 생활실에서 열리는 군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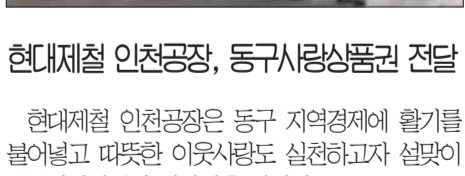
제262회 군의회 임시회
김진희 강원 양양군수는 27일 오전 10시 제262회 군의회 임시회에 참석.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성료
전남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전남 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사진)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동구시랑상품권 전달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동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따뜻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자 설맞이 동구시랑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제철은 최근 동구 관내 복지시설 10개소에 각각 100만원 상당의 동구시랑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동구 현대시장에서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오창민 총무팀장은 "올 설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이들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많지는 않지만 좋은 곳에 쓰이고 동구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전/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후학들 희망 키우고 원대한 꿈 이루길”
하동 옥중농협, 군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정명화 조합장, 8년째 8000만원 출연
정명화 조합장은 옥중농협동조합 임원진이 전남 군수 집무실을 찾아 미래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장학재단은 옥중농협동조합 임원진이 지난 26일 군수 집무실을 찾아 미래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복지향상 최선... 낮은 자세로 조합원 목소리 경청할 것”

여주 흥천농협, 코로나-19 약자속여·수신 45% 이상 성장 '골목이재각 조합장 뛰어난 리더십 성과... 나눔행사로 꾸준히 전개
경기 여주 흥천농협은 최근 설을 앞두고 전 조합원과 관내 소외계층 및 독거 어르신 가정에 가래떡을 전달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 사회에 이웃 나눔의 훈훈함을 전파했다.



전흥표 강원 정선군의회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사진)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패랑지역별 개성과 알파인경기장 사후 활용 등 골목골목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제8회 정선군의회 추반기 의장으로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안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현대오일뱅크,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성금 3000만원 전달

27개소에 각 1500만원씩
현대오일뱅크는 전남 충남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한테 충남도의원, 보령시장 출마 선언

“시·도의원 경력 식견 바탕 위기의 보령 구할 것”

김한테(사진) 충남도의회 의원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보령시장에 출마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인사무실에서 제작한 출마 영상으로 대신하며 약속하고 비장한 마음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탁구요정 신유빈, 2022 경기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관광공사가 한국 여자탁구 기대주 신유빈 선수와 함께 한 해 동안 다채로운 경기도 매력 알리기에 나선다. 26일 공사는 '2022 경기관광 홍보대사'에 신유빈 선수를 위촉(사진)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맞이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 방문

고충·애로사항 등 현장 소리 청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설을 맞아 민생인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사진)했다.

정선군 공무원노조 9기 출범... 유선영 지부장 취임
제9기 강원 정선군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에 유선영(사진) 팀장이 26일 취임했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원지역 이영복 본부장을 비롯한 양선재 강원본부장 당선자, 정선군지부 운영위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포토뉴스



정현국 경기도의원, 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발대식
정현국 경기도의원(더민주·수원)은 최근 수원시 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시지부, 이웃사랑 물품 기탁
전통민속문화보존회 충남 보령시지부는 26일 보령시시장실을 방문,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물품(162만 원 상당의 라면 66박스)을 기탁했다.



최중문 강원경찰청장, 원주경찰서 중요범죄 검거 유공자 포상
최중문 강원경찰청장은 최근 원주경찰서를 방문하고 중요범죄인 검거 유공자 포상 및 현장 감동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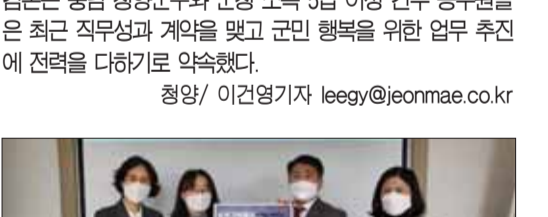
정윤경 경기도의원, 부산시청의용합교육원 현장 방문
정윤경 경기도의원(더민주·군포)은 최근 '부산시청의용합교육원'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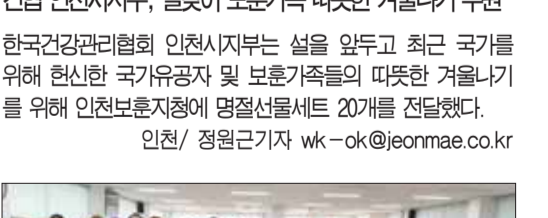
이치코리아, 동두천시에 방호복 기탁
이치코리아는 전남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는 방역요원들을 위해 방호복 100벌을 동두천시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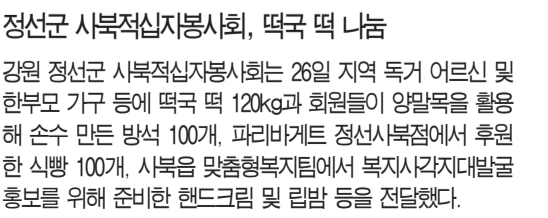
청양군, 간부 공무원과 직무성과 계약 체결
김도곤 충남 청양군수와 군청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최근 직무성과 계약을 맺고 군민 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건협 인천시지부, 설맞이 보훈가족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는 설을 앞두고 최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인천보훈지청에 명품선물세트 20개를 전달했다.



정선군 사북읍직지봉사회, 떡국 떡 나눔
강원 정선군 사북읍직지봉사회는 26일 지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구 등에 떡국 떡 120kg과 회원들이 양말목을 활용해 손수 만든 방석 100개, 파리바게트 정선사북에서 후원한 식빵 100개, 사북읍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해 준비한 핸드드림 및 린넨 등을 전달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배

코리아오픈 하프파이프대회

2022. 02. 17 / 목요일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대회종목 | 하프파이프 스키 & 스노보드

참가대상 | 초등학생 이상 모든 스키어 및 보더

시상부문 | 초등부(남/여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 중고등부(남/여), 대학일반부(남/여)